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해졌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발표

3인 이하 가구 세전 160%는 월 889만원

소득 낮은 우선공급 비율 75→70% 조정

공공분양 신혼특공 일부 추첨제도 도입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물량 30%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

인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

구분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0%)	일반(30%)
공공분양	100%(맞120%)		100%(맞120%)	130%(맞140%)
신혼희망타운	120%(맞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130%(맞140%)	
민영	100%(맞120%)		100%(맞120%)	140%(맞160%)
	120%(맞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		100%(맞120%)	140%(맞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

구분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0%)	일반(30%)	우선(70%)	일반(30%)
공공분양	100%		100%	130%
민영	130%		130%	160%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

단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애플,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공개...미니 모델·맥세이프

프로 모델·망원 렌즈 지원...전문가 겨냥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를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애플의 첫 번째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이다.

CNBC, 더버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온라인 행사를 통해 아이폰12(6.1인치), 아이폰12 미니(5.4인치), 아이폰12 프로(6.1인치), 아이폰12 프로맥스(6.7인치) 등 아이폰 4종과 스마트 스피커 ‘홈팟 미니’를 선보였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아이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5G는 다운로드, 업로드, 보다 질 좋은 영상 스트리밍, 훨씬 반응이 빠른 게임, 실시간 상호작용 등을 위한 새로운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안 드랜스 애플 마케팅 부사장은 아이폰12가 아이폰11과 비교해 11% 얇고 15% 작으며 16% 가볍다고 설명했다. 화면은 세라믹 실드를 사용해 디스플레이 보호를 강화했다.

가격은 아이폰12 799달러(약 91만원), 아이폰12 미니 699달러, 아이폰12프로 999달러, 아이폰12 프로맥스 1099달러, 홈팟 미니 99달러 등이다.

애플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협력했다. 한스 베스트버그 버라이즌 CEO는 신형 아이폰이 고주파인 밀리미터파 5G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트라 와이

드밴드’ 서비스다.

버라이즌의 밀리미터파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최대 4Gbps 속도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버라이즌은 또 커버리지(범위)가 넓지만 속도는 기존 LTE 네트워크와 비슷한 저대역 주파수인 ‘전국(네이션와이드)’ 네트워크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아직 5G 네트워크가 완성되지 않은 탓에 특정 지역에서만 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CNBC는 전했다.

5.4인치 화면을 장착한 아이폰12 미니는 크기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애플이 전년도 모델보다 더 작은 화면의 신형 아이폰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미니도 다른 큰 아이폰12와 같은 기능을 갖겠다고 밝혔다.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이제까지 나온 아이폰 중 화면이 가장 크다.

프로 모델은 메인 아이폰12 모델과 비교해서 한 발 더 나아간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은 전문 사진가들을 겨냥해 프로 모델을 내겠다고 CNBC는 전했다.

차별점 중 하나는 프로 버전에 카메라 렌즈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프로 모델에는 초광각·광각 렌즈 및 더 큰 카메라 센서 외에 망원 렌즈가 지원된다.



3D 스캔을 할 수 있는 라이더(LiDAR) 스캐너도 탑재했다. 라이더 스캐너는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돼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파악한다.

아이폰12 프로는 포착한 이미지를 더 생생한 색감으로 보여주는 HDR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돌비 비전 촬영도 지원한다.

아울러 맥북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된 자기 충전 방식의 ‘맥세이프(MagSafe)’ 단자가 부활했다. 애플은 2016년부터 맥세이프를 USB-C 단자로 대체했지만 이번에 아이폰12 라인을 통해 맥세이프를 다시 도입했다.

충전 케이블과 맥을 자석으로 연결하는 노트북용 맥세이프는 일정한 힘을 가하면 케이블과 맥 본체가 쉽게 분리되도록 했다. 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충전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노트북이 망가지거나 데이터가 갑자기 날아가는 사태를 방지해줬다.

아울러 아이폰12는 기존 아이폰과 달리 충전 어댑터와 이어폰을 제공하지 않는다.

광주은행, 순천시 2금고 탈환 도전

14일 제안서 접수 마감...22일 선정

광주은행이 광주시 1금고와 전남도 제2금고 수성에 이어 순천시금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17년 하나은행에 순천시 2금고를 빼앗긴 이후 3년 만의 리턴매치로, 이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와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14일 시공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22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천시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하나은행이 맡고 있다. 2금고 유치를 놓고 광주시와 하나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의 위상에 걸맞게 광주시 1금고, 전남도 2금고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 지자체에서 1금고 6개, 2금고 16개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58년간 기업은행이 맡아 온 목

포시 금고 유치에 성공하며 전남지역 금고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2017년 순천시 2금고 선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에 고배를 마시 자존심을 구겼다. 순천은 송중옥 행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광주은행은 올해 순천시 2금고를 되찾기 위해 사실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업비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만큼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순천시 2금고는 2017년 이전 광주은행이 맡아 왔던 분야로, 지역은행의 장점을 살려 유치전에 나섰다”며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이나 순천시 인재육성학회 후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출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정승호기자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산 표고버섯이중 최대의 밀키트 업체 ‘헬로우세프’를 통해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전남농협, 모바일 전용 ‘NH직장인마이너스대출’ 출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 가능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서류제출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NH직장인마이너스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NH직장인마이너스대출’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 한도거래 대출이다.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NH스마트뱅킹에 가입한 직장인 고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간편하게 대출신청 및 즉시대출 실행 가능하다.

현 직장 1년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고객 중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기간은 1년 만기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도거래방식으로 최초 약정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종합통장대출이다. 이 외에도 농협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



대면 여신상품으로는 NH직장인스마트론, NH 모바일바로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이 있다.

농·축협 조합원과 하나로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품 NH복비상금대출은 10월 중 출시 예정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비대면 대출시장이 급격

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NH직장인마이너스대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비대면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한국 표고버섯 중동 가정간편식 시장 첫 진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비대면(언택트) 식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한국산 표고버섯이 중동의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산림청과 오는 15일부터 중동 최대의 밀키트 업체 ‘헬로우세프’에서 한국산 표고버섯을 활용한 한식요리 2종류를 런칭한다고 14일 밝혔다.

런칭하는 한식요리는 비빔밥과 불고기 덮밥이며, 각각의 레시피 동영상은 15일과 22일에 나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헬로우세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다.

여기에 한국산 버섯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11월에는 현지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관측행사도 추진한다.

aT는 그간 한국 버섯의 불모지인 중동 진출을 위해 타국산 버섯 진출현황과 한국산 수출유망 버섯 시장조사와 버섯 전문 수입바이어 발굴 등에 노력해 왔다.

특히 한국 표고버섯의 고유한 향을 낮alt시키는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밀키트시장 진출 성과를 거두게 됐다.

‘헬로우세프’는 전세계 유명 요리 레시피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각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손질된 재료를 배달해주는 프리미엄 밀키트 전문 업체다.

이 업체는 한국 표고버섯을 활용한 한식 요리 런칭을 계기로 버섯을 식재료로 쓰는 요리 전반에 한국산 버섯 사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